



“미래에는 킬러 플랫폼만이 살아 남는다”

매크로미디어 수석 부사장 **탐 헤일**

“**더** 이상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. 미래에는 킬러 플랫폼만이 주목받을 것이며, 코어 플랫폼을 차지하는 기업만이 살아 남게 됩니다.”

‘플래시 플랫폼(Flash Platform)’ 발표를 위해 지난달 방한한 탐 헤일 매크로미디어 수석 부사장은 이렇게 단언했다. 동시에 탐 헤일 수석 부사장은 매크로미디어가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플랫폼 업체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. 유비쿼터스 환경에

맞춰 모든 디지털기기에 플래시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가.

플래시는 매크로미디어가 개발한 그래픽 데이터 포맷으로 전세계 PC에 플래시 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. 탐 헤일 수석 부사장은 이같은 플래시의 대중적 활용성을 휴대폰이나 PDA·MP3플레이어·디지털TV 등에 이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
탐 헤일 수석 부사장의 설명에 의하면 플래시 플랫폼은 매크로미디어의 모든 소프트웨어 제품군에 대해 플래시를 기본으로 한 플랫폼으로 확장해 정의한 것. 여기에는 범용적인 클라이언트 런타임·개방형 SWF 파일·강력한 프로그래밍 모델·검증된 개발 툴·전용 서버 기술·통합 솔루션 등의 지원까지 제공하겠다는 매크로미디어의 전략이 포함돼 있다고 탐 헤일 수석 부사장은 설명했다.

플래시 플랫폼을 구성하는 제품은 매크로미디어 ▲플래시 플레이어(Flash Player, 클라이언트) ▲플래시 캐스트(Flash Cast,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) ▲플래시 라이트(Flash Lite, 모바일용 플래시 기술) ▲플렉스(Flex, X-인터넷 솔루션) ▲브리즈(Breeze, 웹 커뮤니케이션 솔루션) ▲플래시 MX 2004(Flash MX 2004, 인터랙티브 콘텐츠 저작 툴) ▲플래시 커뮤니케이션 서버(Flash Communication Server, 양방향 오디오·비디오 스트리밍서버) 등으로 플래시 기반으로 긴밀하게 통합돼 제공된다.

탐 헤일 선임 부사장은 “플래시 플랫폼은 전세계적으로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구성요소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, 특히 모바일 및 디바이스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 주고 있다”면서 “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인프라를 비롯 J2EE, 닷넷과 같은 서버측 기술을 완벽하게 보완하여 훌륭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튼튼한 기초가 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현재 삼성전자, 노키아의 휴대폰에 플래시 플레이어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으며, 조만간 모토로라 휴대폰에도 플래시 플랫폼이 탑재될 예정이다. 최근 레이콤의 MP3플레이어에도 플래시 플랫폼이 장착된 바 있다.

한편 탐 헤일 부사장은 광대역 통신사업자들이 플래시 플랫폼에 솔루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으며, 플래시 플랫폼 상에서 이클립스 기반의 새로운 IDE 개발을 위해 이클립스 재단에도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. ●

글 신승철 기자·사진 이혜성 기자